

일본정부, 자국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확대

일본정부가 국제협력은행(JBIC)을 통해 자국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인바, 이러한 일본정부의 방침에 따라 우리나라와 관련해서는 특히 전세계 인프라시장에서의 수주경쟁 심화, 대아시아 수출경쟁 격화 등이 예상된다.

- 일본의 센고쿠 요시토(仙谷由人) 국가전략상은 자국기업의 미국 고속철도사업 수주를 지원하기 위해 국제협력은행(JBIC)의 용자대상을 확대한다고 발표
 - 이하는 최근 일본정부가 자국기업 해외진출 지원에 관련된 주요 내용임.
 - JBIC의 업무와 관련하여 원자력발전소 등에 한정된 선진국 대상 용자업무에 철도사업을 추가
 - JBIC의 기능강화를 위해 조직재편 검토
 - 일본기업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JBIC를 일본정책금융공고(JFC)로부터 ‘재분리’ 하는 방안 검토
 - 원자력발전 건설의 수주 강화를 위해 전력회사, 원자력발전회사, 정부(JBIC)가 ‘공동출자’ 한 새로운 회사의 설립을 검토

- 미국의 고속철도망 정비사업에는 일본의 ‘JR동해’ 등이 수주에 관심을 표명한 가운데 유럽과의 경합이 예상
- 마에하라 세이지(前原誠司) 국토교통상은 4월 말경 방미하여 일본 기업의 수주 노력을 측면 지원할 예정

일본 국제협력은행(Japan Bank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)

- ▶ 국제협력은행(JBIC)은 2008년 10월부터 국민생활금융공고, 농림어업금융공고, 중소기업금융공고와 통합하여 일본정책금융공고(JFC)로 재탄생
 - JBIC은 일본정책금융공고의 국제부문을 담당하면서, 주로 개도국 대상 용자 사업을 지원하고 선진국 대상은 원자력발전 사업 등으로 한정
 - 국제적 신용의 유지 측면에서 국제협력은행(JBIC)의 명칭은 계속 사용
- ▶ JBIC의 3대 업무분야는 ‘중요 자원의 해외 개발 및 취득 촉진’, ‘일본산업의 국제경쟁력 유지 및 향상’, ‘국제금융질서 혼란에의 대응’임.
 - 7대 업무는 ‘수출금융’, ‘수입금융’, ‘투자금융’, ‘사업개발금융’, ‘브릿지론’, ‘출자’, ‘조사업무’임.

□ 하토야마 정권은 성장전략의 일환으로 일본기업이 강점을 갖고 있는 원자력발전, 철도, 수질처리, 환경기술 등 사회자본 관련 분야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할 방침인데, 이러한 내용은 이미 『2009 통상백서』(2009.6)에서도 언급된 바 있음.

- 『2009 통상백서』에 따르면, 일본정부는 최근 세계금융위기에 따른 자국경제의 침체가 과도한 수출의존형(특히 고부가가치제품, 선진국 중심) 산업구조에 기인하고 있다고 판단

- 따라서 중간층 인구 확대 및 고성장이 예상되는 아시아 및 신흥 시장의 개척이 긴급하며, 이를 위해 저비용화 기술에 의한 새로운 이노베이션 촉진을 시급한 과제로 인식
- 이외에도 보호주의 억제, 전력·교통 등 인프라산업 및 저탄소기술의 해외전개, 자원부국과의 산업협력 등을 중요 과제로 추진할 계획

<참고자료>

朝日新聞(2010.3.18).

国際協力銀行, 『国際協力銀行の役割と機能』.

経済産業省(2009.6), 『平成21年版通商白書』.